장애인연금도 '장애정도' 따라 지원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다음달 장애등급제 폐지…판정기준 내달 1일 시행

다음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은 지금까지 받던 장애인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올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19.4월 기준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시설)	30만 원	-	30만 원		-	-
차상위	25만3750원	7만 원	32만3750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25만3750원	2만 원	27만3750원		4만 원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올해 4월 기준 장애인급여 지급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며 수급률은 70%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일 장애인 등록제가 '심한 장애(현행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로 개편되면서 수급 대상 기준인 중증장애인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의된다.

정부는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 등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을 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도 '장애정도'로 변경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지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장애인 사업 위한 차량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17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야외마당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에 장애인 차량 6대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장흥군·K-water,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 '맞손'

장흥군과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지사장 김대근)는 18일 장흥군청상황실에서 지역최초의 '유관기관합동 사회적약자 일자리사업단'을 창단하고 '친수형(親水型)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시행한 '장흥권역사회가치창출아이디어공모'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창단된 K-water 장흥물사랑희망일자리사업단은 지자체인 장흥군과 공기업인 K-water 전남서남권지사 및 종합복지전문기관인 장흥지역자활센터,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등 11개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일자리창출 실무협의체로 장흥군에서 수계기금 1억원, K-water에서 자체예산 3억 4300만원을 지원받아 7개 분야 일자리사업을 연중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한다.

장흥권역 최초 민·관협력 친수형 일자리창출 합동 프로젝트 추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0여명 일자리제공, 4억 4300만원 지원

세부사업으로는 수도관로 실버가디언 운영,장흥댐 윗물살리기 실시, 친환경 편백장난감 제작,친환경 어구·어망 제작,폐현수막 친환경사이클링 추진 등 지역니즈와 특색을 반영한 아이템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등 취약계층 150여명의 직접적인 소득증진, 직업훈련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근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장은 "K-water가 장흥군의 일원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의 선도기업으로서 더욱 사회적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금년에는 소외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참여유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마침내 귀한결실을 맺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송호빈 기자

광주시,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시설 종사자 교육

광주시는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변화되는 제도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김경란 팀장이 맡아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향후 역할' 등을 전달했다.

김 팀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이후 찾아가는 상담과 장애인 사례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와 자치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담당자 실무교육을 마치고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이달말까지 고난도 복합사례관리를 추진할 자치구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종사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제도변화를 이해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대기업 다녀도 저소득이면 '직원훈련'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직업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 원 한도)이다.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보 안내: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224-5800